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무오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26장 '성경의 무오성', 275~286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무오성'이라는 말의 뜻부터 정리합니다. 오르, 제한적 무오론, 사전의 정의를 비교한 뒤, '불오'가 '무오'보다 더 강한 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서 성경이 왜 무오한지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도 없으니, 그분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장의 핵심 구분이 나옵니다. 진리와 정밀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오성은 “성경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충실하다”는 뜻으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친 문법, 연대순이 아닌 서술, 느슨한 인용 같은 현상은 무오성의 '예외 조항'이 아니라 이 정의를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만큼 무오하다는 결론으로 마칩니다.

📜 절별 정리

📜 1. 무오성, 먼저 뜻부터 정하자

무오성은 성경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라 사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제임스 오르는 무오성을 역사·지리·과학의 세부 사항까지 엄밀하게 문자 그대로 맞다는 뜻으로 정의했고, 그래서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제한적 무오론'은 성경이 구원 문제에서만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오르의 정의를 따르면 제한적 무오론은 무오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정의에서 무오성이라는 말은 구원과 상관없는 영역에서도 성경이

거짓이 없음'으로 정의하는데, 프레임은 이 정의가 앞의 두 정의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전이 덧붙인 '문자적 진리'라는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오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참되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각주 8).

1. 무오성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 정의가 먼저다
2. 오르: 세부까지 엄밀하게 문자 그대로 맞음
3. 제한적 무오론: 구원 문제에서만 오류 없음
4. 사전: 오류나 거짓에서 자유로움
5. '문자적'은 해석 문제라 무오와 별개다

> **(없음)**
> 용어를 정의하는 단락이라 저자가 인용한 구절이 없음

📜 2. 무오와 불오, 어느 쪽이 더 센 말인가

사전은 '불오'(infallible)를 '무오'(inerrant)의 비슷한 말로 소개합니다. 불오의 사전 정의는 셋입니다. 오류를 범할 수 없음, 실패할 수 없음(확실함), 그리고 로마가톨릭 용법인 '신앙과 도덕을 가르칠 때 오류가 없음'입니다. 세 번째 정의는 제한적 무오론과 닮았습니다. 프레임이 주목하는 것은 세 정의 모두에 들어 있는 '~할 수 없는'이라는 말입니다. 불오는 오류가 실제로 있느냐뿐 아니라 오류가 생길 수 있느냐까지 다루는 말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서법 용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불오가 무오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로저스와 맥킴은 불오를 더 약한 말로 쓰자고 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문서를 불오하다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이것이 당혹스럽고, 단어를 무책임하게 쓰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불오 개념은 사실상 로마교회식 세 번째 정의와 닮았다는 지적도 덧붙입니다(각주 10). 프레임은 사전조차 두 말의 경계를 흐리게 둔다는 점, 언어는 정밀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오는 '오류가 없음'이고, 불오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함'입니다. 성경은 둘 다이며, 불오하기 때문에 무오합니다.

2. 그래서 불오가 무오보다 더 강한 말이다
3. 로저스·맥킴의 '약한 불오'는 무책임하다
4. 성경은 무오하고 또한 불오하다
5. 오류가 있을 수 없으니 오류가 없다

> **(없음)**
> 어휘 분석 단락이라 저자가 인용한 구절이 없음

“성경은 불오하기 때문에 무오하다.”

📜 3. 왜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가: 거짓말도, 모르는 것도 없으신 하나님

이 결론은 앞 장들에서 다룬 '인격적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논의입니다. 프레임은 1장의 사상 실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틀리셨습니다”라고 따지는 모습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절대 권위로, 곧 듣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울 권리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오류는 두 곳에서 생깁니다.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기만, 그리고 몰라서 틀리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그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아니라 논리로 끌어낸 결론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원래 성경의 말을 되풀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는 질문에 성경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논리적 추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의 '필연적 결론').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 곳에서 직접 말합니다. 로마서 3:4가 보여 주듯,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치면 이겨야 할 쪽은 하나님입니다.

1. 오류의 두 뿌리: 기만과 무지

3.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
4. 신학에서 논리적 추론은 정당하다
5. 내 생각과 부딪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민수기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기만의 가능성 제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디모데후서 2:13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신실하심의 근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도서 1:2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기만 부정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히브리서 6:18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할 수 없음', 곧 불오의 근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33:13-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굽어보신다: 무지의 가능성 제거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히브리서 4:12-13

그분 앞에 숨겨진 피조물이 없다: 하나님의 전지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편 51:6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진리의 하나님 (원문 표기 '시 5:16'은 오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119:43, 160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직접 진술

시편 119: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142, 151

주의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는 직접 진술 (원문 표기 '141'은 142로 보임)

시편 119:142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자신의 증언

로마서 3:4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충돌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4

로마서 3:4가 인용하는 구절: 판단받으실 때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 4. '진리'의 세 가지 뜻, 그리고 왜 굳이 '무오성'이라는 말을 쓰는가

성경에서 '진리'는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실재로서의 진리, 곧 참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사실을 바르게 진술하는 말인 명제적 진리입니다. 셋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윤리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뜻에서 진리이시지만, 이 장의 관심은 명제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을 만하고 옳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사실 '불오', '무오' 같은 성경 밖의 전문 용어를 버리고 그냥 “성경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진리'를 명제와 상관없는 거창한 신학 개념으로 비틀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6에서 진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점을 들어, 명제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부정해 왔습니다. 불오성도 좋은 말이고 종교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로저스와 맥킴이 그 뜻을 약하게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여전히 '진리'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무오성'을 '불오한', '믿을 만한', '정확한', '올바른' 같은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말로 지지합니다. 그는 이 견해가 성경의 가르침이며, 17세기 합리주의 신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교회가 한결같이 고백해 온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균형도 잡습니다. 무오성은 명제(사실을 확언하는 말)에 붙는 성질입니다. 성경에는 질문, 명령, 약속 같은 다른 말도 있으므로, 무오성만 강조하다가 나머지 말씀의

1. 진리: 실재적·명제적·윤리적 진리
2. 이 장의 관심은 명제적 진리다
3. '진리'만 쓰면 신학자들이 비튼다
4. 그래서 '무오성'을 함께 쓴다
5. 무오 강조가 명령·약속을 가리면 안 된다

요한복음 17:3

'유일하신 참 하나님': 궁극적 실재로서의 진리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명기 17:4

고발이 '사실'로 드러남: 사실을 바르게 진술하는 명제적 진리

>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열왕기상 10:6

스바 여왕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명제적 진리

>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요한일서 1:6

어둠에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음: 윤리적 진리

>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2:4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없음: 윤리적 진리

요한이서 1:4

진리 안에서 행함: 윤리적 진리 (원문에 끼어 있는 '2'는 끊긴 표기로 보임)

>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복음 14:6

“내가 곧 진리요”: 진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쓰임. 신학자들이 이를 명제적 의미를 지우는 데 써 왔음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5. 진리와 정확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무오성'이라는 말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진리'보다 '정밀함'을 떠올립니다. 오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리와 정확성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진리에 필요한 정확성의 양은 문맥마다 다릅니다. 수학 시간에 “6+5=10”이라고 하면 오류이고, 과학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오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누가 나이를 물었을 때 초 단위까지 대답하는 것은 더 정확할지는 몰라도 더 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로 대화를 방해합니다. 398쪽짜리 교과서를 “400쪽”이라고 하는 교수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 주었고, 오히려 책의 크기에 대한 인상을 더 바르게 전했습니다. 3.98달러라는 가격표가 4달러보다 싸다는 착각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각주 15). 그러므로 무엇이 오류인지 가리려면 언어와 문화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프레임은 문화와 언어의 역동성을 모른다는 비난은 오히려 무오성을 반대하는 쪽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각주 16). 성경은 대부분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의 말로 쓰였고, 현대 과학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려고 인간 저자를 통해 어림, 은유, 과장, 비유를 쓰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자기 목적에 충분한 만큼 정확합니다. 일부 독자가 자기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만큼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필요한 정밀함은 문맥이 정한다
3. 지나친 정밀함은 진실을 가릴 수 있다
4. 성경은 과학 문서가 아니라 일상의 말이다
5. 성경은 자기 목적에 충분히 정확하다

> **(없음)**
> 일상 언어의 예(나이, 쪽수)로 논증하는 단락이라 인용 구절이 없음

"무오성은 성경이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를 의미하진 않는다."

📜 6. 무오성의 더 정확한 정의: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

사실을 진술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장'합니다. "책이 탁자 위에 있다"는 말은 가서 보면 정확히 거기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스물네 살이다"는 정확히 스물네 살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마지막 생일에 스물네 살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교실에서 말한 "400쪽"은 믿을 만한 추정치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출판사 직원이 사장에게 같은 숫자를 보고했다면 그것은 오류이고, 큰 손해를 낳고 해고감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주장하고, 요구되는 정밀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장은 드러내 놓고 할 수도 있지만("정확한 인용은 아니고 요지만 말하자면…"), 대개는 관습에 기대어 말없이 합니다. 나이를 말하며 "이건 어림수예요"라고 덧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원래 등장인물과 저자가 무엇을 주장했을지 알 만큼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매번 비유라고 밝히지 않으셨지만 청중은 알아들었습니다. 비유는 역사적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로 깊은 진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무오성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무오한 말은 그 말이 주장하는 바에 충실한 말이다.

1. 명제는 듣는 이에게 무언가를 '주장'한다

3. 주장은 대개 관습에 기대어 암묵적이다
4. 비유는 역사가 아니어도 진리를 전한다
5. 무오 =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

> **(특정 구절 없음)**
> 예수님의 비유 일반을 예로 듦: 비유라고 밝히지 않아도 청중이 장르를 알아들음

📜 7.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적용이다: 문법·순서·인용, 그리고 결론

요즘 많은 신학자는 '무오성의 자격 요건'을 나열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문법, 연대순이 아닌 서술, 어림수, 느슨한 인용, 과학 이전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묘사(“해가 떴다”), 숫자와 상징의 사용, 대략적인 묘사(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는 마가복음 1:5) 같은 것들입니다. 프레임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이것들을 무오성에 붙는 단서나 예외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주장할 뿐 정밀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무오성의 기본 뜻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법부터 보면, '좋은 언어'의 기준은 사람 문법학자가 정한 다소 임의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규범이 아닙니다. 신약은 투키디데스나 플라톤의 문학적 헬라어가 아니라 서민의 코이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칼빈의 표현대로 유모가 아기에게 말하듯 우리 수준에 맞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의 세련된 문장으로도, 어부 베드로의 소박한 문장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맞춰 주신다고 해서 오류를 말씀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쉬운 말을 써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각주 20). 순서를 보면, 성경의 역사 기록(대체로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그리고 공관복음)은 현대적 학문 역사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분명히 주장하는 곳(마태복음 8:1)도 있지만 드뭅니다. 인용을 보면, 인용부호도 각주도 없던 시대에는 요지만 전하거나 강조를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외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3:16에서 '씨'가 단수라는 점에 해석의 무게를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으므로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 사실 정보는 전문 언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입으로 전한 말씀만큼 무오하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만큼 무오합니다. 다른

2. 거친 문법도 진리를 담을 수 있다
3. 적응은 쉬운 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4. 순서·글자 그대로의 인용은 대개 주장 안 함
5.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음성만큼 무오하다

> **마가복음 1:5**
>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옴: 대략적 묘사가 오류가 아니라는 예
>
>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 **마태복음 8:1**
> 산에서 내려오신 뒤 무리가 따름: 성경이 순서를 분명히 주장하는 드문 예
>
>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 **갈라디아서 3:16**
> '씨'의 단수형에 해석을 거는 예외: 이 경우는 단어 하나가 중요함
>
>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 **창세기 22:18**
> 갈라디아서 3:16이 근거로 삼는 '네 씨' 약속
>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오해와 반론** ⌄

무오성

성경에 오류나 거짓이 없다는 성질입니다.

불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성질로, 무오성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제한적 무오론

성경이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만 오류가 없고, 역사나 과학 같은 다른 부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법 용어

'~할 수 있다/없다'처럼 실제 사실을 넘어 가능성까지 말하는 단어입니다.

명제(명제적 진리)

“책이 탁자 위에 있다”처럼 사실을 확언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사실과 맞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역(논리적 추론)

이미 참인 전제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결론을 끌어내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사상 실험

실제로 해 볼 수 없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며 생각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적응

하나님이 우리의 좁은 이해력에 맞추어, 부모가 아이에게 하듯 쉬운 말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이네 헬라어

신약 시대 지중해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던 일상 헬라어입니다.

현상적 묘사

“해가 떴다”처럼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인격적 말씀

프레임의 기본 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권위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무오는 '오류가 없음', 불오는 '오류의 가능성이 없음'이고, 성경은 불오하기 때문에 무오하다.
-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 무오성은 최고 수준의 정밀함이 아니라 진리, 곧 “주장하는 바에 충실함”이다.
- 거친 문법, 어림수, 순서 바꾸기, 느슨한 인용은 예외 조항이 아니라 일상 언어로 말씀하신 결과다.
- 기록된 말씀은 선지자·사도의 말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큼 무오하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5편 · 무오성 · '틀림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